

[삼보사찰 천리순례 5]공동체 정신 배워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0.07 07:30 댓글 0



(앵커)

불교중흥을 위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지리산 실상사에서 미래불교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 정신을 배웠습니다.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은 천리순례가 더 많은 대중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하늘의 달과 별만이 세상을 밝히는 이른 새벽.

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또 다른 빛 무리가 구산선문 가운데 한 줄기인 지리산 실상사로 들어섭니다.

해발 1000m에 달하는 시암재와 성삼재를 건너 전남에서 전북으로 걸음을 옮긴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새로운 전법과 포교를 중심으로 미래불교를 개척해야 한다는 사부대중의 원력이 불교공동체, 마을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5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4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3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2일 전체뉴스
- 2021년 10월 11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  관음종 부산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당해
-  진관사 찾은 펭수 "내면 진심 깨달아"
-  무문홍법사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상 훼손
-  해동용궁사, 조계종 화엄사 말사로 등록
- 수덕사승가대학장 역임 밀양 무이정사 주지 무이거부스님 입적
-  운허스님과 당대 고승 자료 한 자리에
-  용화사에 화엄사 전통사경원 분원 개원

공동체로 이름 난 실상사에 닿은 겁니다.

실상사는 사찰과 산내공동체가 함께 지역사회를 일구는 도량으로 종교영역은 스님들이, 살림은 재가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갈등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순례를 해온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은 사내 대중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보며 또 한 번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법스님 / 남원 실상사 회주

(여러분 한분 한분의 그런 신심과 발원들이 어찌면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걸음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순례단은 이날 실상사에 잠시 머무르며 주지 승묵스님 안내에 따라 실상사가 추구하는 생명평화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이른 새벽부터 순례단을 맞이해준 실상사에 감사를 표하며, 도법스님에게 천리순례 염주를 선물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실상사의 약사여래 천일기도에 신심을 보태며 불교중흥을 기원했습니다.

정총래 /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원

(미래불교 방향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쪽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상월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상사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상사에서 아침공양을 마친 순례단은 다시 지리산자락에 올라 서산대사를 비롯한 선각자들이 지났다는 오도재까지 이동했습니다.

오도재 정상에 자리한 지리산제일문은 자승스님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남긴 오도송을 해인사 측에서 현수막으로 장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은 오도재를 찾아와 전북에서 경남으로 걸음을 옮긴 순례단의 원력을 응원했습니다.

현응스님 / 합천 해인사 주지

(여러분들 법체 더 강건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연꽃을 피워낸다는 정진력으로 회향할 때까지 잘 복을, 공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누적 이동거리 136km, 6일간 험난한 길을 걸으며 총 순례코스의 3분의1을 이동한 순례단은 앞으로 속도를 내 법보종찰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가사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락

(삼보사찰 천리순례 9) 빗줄기 뚫고 구법 행선

진관사 국행수륙재 회향..고통·아픔 치유

(삼보사찰 천리순례 8) 법보종찰서 반결제

내포가야산 보원사 수륙대재 재현회 봉행



용화사, 자비로 전하는 사찰음식도시

기사 댓글 0개

전체 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계호 : BTN불교티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봉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S